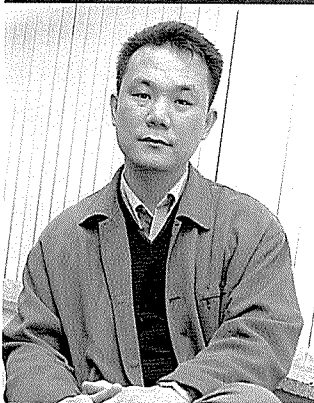


유능한 강사가 되기 위한 시간

전국제과강사연합회

제과인들이 결성한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베이커리 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모임 가운데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닌 기술 교류와 경영 정보 등의 공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모임은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여건을 탈피해 좀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모임은 생활의 액센트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베이커리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학원강사연합회는 제과기술인을 양성하는 학원의 강사로 구성된 모임으로 다른 모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모임은 제과기술학원 강사들로 구성됐으며 친목보다는 기술발전과 유익한 정보 공유의 성격이 강해 철저히 강사 자신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문재원 회장(전국학원강사연합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교사가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실력을 쌓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실력은 정체되어 결국에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개인의 자기 개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원강사연합회(회장 문재원)는 이러한 강사들의 애로점 때문에 결성된 모임으로 4년 동안 우수한 자질 배양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모임 구성원들이 일선에서 활동 중인 강사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 할애가 어려워 주로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97년 결성,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

전국제과학원강사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임을 처음 주도한 사람은 당시 인천제과학원 이우석 부원장으로 이전에 있었던 강사모임이 유명무실해져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모임은 서울시내 몇 개 학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20명 정도의 강사들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 시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친목 위주였던 모임은 차츰 각 학원별로 모임 장소를 제공해 정보교류와 기술발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진주, 익산, 전주, 포항, 대구 등 지방 소재 학원들의 참여도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모임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렇지만 학원 강사의 업무 특성상 모든 회원이 전부 참여하기 힘들어 매회 모임에는 고정적으로 40여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 지난 10월 28일 리치몬드제과학원에서 실시된 세미나의 모습

“처음에 전국제과학원강사연합회가 결성됐을 당시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원의 원장님들은 노조와 비슷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의 자질 향상이 곧 학원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학원 측도 우수 강사의 확보는 시급한 관건인 동시에 기존 강사의 재교육 필요성 때문에 강사연합회를 보는 시각도 전과 달리 아주 호의적으로 변했다.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해 활동 다양화

작수 달을 기준으로 격월로 모이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사들은 어려운 시간을 낸 만큼 열정을 가지고 모임에 임한다. 각 해마다 모임의 방향을 정해 기술 세미나와 주제발표, 강사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주제발표의 경우 ‘교사의 자질 향상’ 등 비판적인 주제도 논의 되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청해 언변과 이미지 메이킹 등도 익혀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한 기본기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모임을 세미나로 하자는 의견을 수렴해 매회 모임이 학원별로 장소를 순회하며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마다 각기 다른 주제와 안건을 선택해 다음 해에 주요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다루는 분야도 실탕공예, 초컬릿, 화과자와 같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정해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번 모임은 올

들어 5번째로 바인하임의 위제상씨를 초빙해 리치몬드제과학원에서 마지팬을 이용한 케이크 데커레이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렇듯 기술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모임은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됐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 모임에 대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문재원씨는 “지방 회원을 위해 장소선택에 있어 여러 가지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곳을 선택합니다. 또한 학원별로 회비를 받기 때문에 강사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

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임은 인터넷상에 별도의 홈페이지(www.bakery-net.co.kr/bata)를 운영해 게시판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강사들간에 중요한 모임으로 부상한 것이다.

제과학원 강사는 단편 일률적인 기술만 가지고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국제과강사연합회의 활동은 일반적인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우수한 제과기술인 양성에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모임이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글]

정한상 Jeong@mbakery.co.kr